사가애 당뇨소설 연재

좌반신 마비와 탈진 출현!

글 쓴 이 / 다께다 하루오·우가가꾸병원 당뇨병센터장,
일본당뇨협회 이사

등장인물 / 요리다까하루끼선생(가공인물)·지하라다이중앙병원 당뇨병센터장
난또까나루(가공인물)·당뇨병 20년차, 혈당관리에 불성실,
치료중단도 여러번, 택시기사, 신장 170cm, 체중 63Kg의 보통체격, 58세

〈지난 줄거리〉
난또까시는 58세로 당뇨병 망막증 수술을 받아야 할 지경에 이르러 과거를 돌이켜보기 시작했다. 40세 때부터 투병 생활에 관한 기억의 실마리를 풀어보기 시작했다. 그 당시 그는 일본 유수의 상사 '가꾸베니'에 근무하고 있었으나, 48세 때 리조트 개발 담당을 이유로 남해의 고도 '남대도'에 전근을 명받아 전근할 것인가, 사직할 것인가의 기로에 서게 되었다.

고민하고 고민한 끝에 나루사는 전직을 결정했다. 이유는 사운을 건 프로젝트 팀에 뽑혔다고는 하지만 기획 담당의 엘리트팀이 동경 본사에 모여지는데 반해 현지 파견이 되는 것은 탈락조를 긁어 모은 팀인 것 같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가꾸베니'를 사직한 그는 보다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업종인 택시업계를 찾아다녀 운 좋게 업계에서도 큰 회사인 '안심택시'에 취직할 수 있게 되었다.
입사직후는 보통 1종 면허의 취득과 사원연수 때문에 2개월 가깝게 시간이 필요했지만 지도 담당의 선배가 잘 지도해 준 덕분에 어렵지 않게 잘 넘길 수 있었다.
그럭저럭 지내는 사이 아들 세이따로는 고교 3학년이 되고 야구부에서 부동의 4번 타자로 성장했다. 그의 활약으로 신성고 야구부는 그 해의 여름에 당당하게 2년 연속 갑자원 출전을 이루어냈다. 또한 갑자원에서도 세이따로가 장타를 연발하여 승리를 거듭하며 베스트 4의 성적을 냈다. 몸집이 큰 그는 극도로 땀을 많이 흘려 시합 중 언제나 물수건으로 닦아내서 '물수건 왕자'라는 별명이 붙여져 갑자원의 인기인이 되었다. 이 장타력과 인기가 스카우트의 눈에 띄어 가을의 선발회의에서 그는 최근 인기 상승 중의 '낙승 베아스' 1위로 지명되어 염원의 프로 야구입문이 약속되었다.
그래서 그날 밤은 아들의 프로야구 입문을 축하하기 위해 술을 마신 나루사는 상당히 취기가 오를 때쯤 평상시보다 발끝이 심하게 저려왔다. '오늘밤은 취해서 그런가? 그렇잖으면 하루 종일 앉아만 있어서인가?' 하고 걱정이 되었다.

며칠 후 그는 택시 운전 개시직후부터 왼쪽 발의 저림이 무릎 근처까지 넓혀져 힘이 들어가지 않고 동시에 왼쪽 팔의 저림과 탈진(기운이 다 빠져 없어짐)도 나타나 '이거 큰일이다' 라고 당황해 마찌노 의원으로 달려갔다. 거기에서 마찌노 선생으로부터 "당뇨병 때문은 아닌 것 같은데, 뇌혈관의 이상인지 정형외과적인 이상인지 판별이 곤란합니다. 신죠시민 병원 정형외과 부장인 아까사끼 선생께 소개할테니 진찰을 받으십시오. "라는 말을 듣고 나루사는 '뇌경색이면 어떻게 할까' 큰 충격을 받았다.

이틀날의 아까사끼 선생의 진찰결과는 "머리부분은 이상 없습니다. 경추(목뼈)와 요추(허리뼈)의 가벼운 변형은 있지만 택시 운전기사라면 과도하게 발을 많이 쓴 게 원인이 아닌가요" 라는 것이었다. 그 대답으로 한 숨 놓았지만 "양쪽 발끝이 제법 둔해져 있으니 당뇨병성 신경장애는 많이 진행되어 있는 것 같으니 주의해야 합니다."라는 말을 듣고야 말았다.

병원을 뒤로 한 나루사 '그래 전에 있던 회사 차는 자동변속차(오토)였지만 지금은 수동식 차(스틱)니까 익숙치 않은 조작을 되풀이했으니 별 수 없지. 당뇨병성 신경장애가 진행되어 있다고 했으나 별 괜찮겠지 발저림 정도는 참아야지' 라고 다시 한 번 스스로를 위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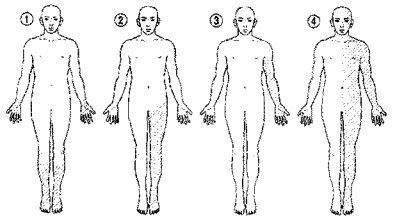
요리다까 선생의 조언

당뇨병성 말초신경장애는 발 절단에 이르는 괴저로 진전하기 때문에 결코 무시해서는 안될 합병증입니다. 원인별 지각 장애 출현 부위를 도표로 제시합니다.

당뇨병성 신경장애는 양손, 양발의 선단부부터 시작되어 점차 중추부에 넓혀져 갑니다. 꼭 장갑이나 양말을 착용한 부분만 증상이 나는 느낌이어서 장갑, 양말형 지각장애로 불리어지기도 합니다.

당뇨병성 신경장애는 양쪽에 동시에 출현합니다만 경추의 이상, 요추의 이상, 뇌혈관장애의 경우는 각기 신경의 담당부분만 지각장애가 출현하니까 한 쪽만의 이상이 됩니다. 당뇨병성 말초신경장애의 발병과 악화 예방법을 표로 제시합니다. 발병 및 악화되지 않도록 예방에 힘씁시다.

※ 지각장애의 원인과 출현부위



①당뇨병성 말초신경장애
②요추 이상에 의한 한 쪽 지각장애
③경추 이상에 의한 한쪽 지각장애
④뇌혈관장애성 한 쪽 지각장애

※ 당뇨병성 말초신경 장애의 발병 · 악화 예방법

1. 치료시작 초기부터 혈당조절을 양호하게 유지할 것(당화혈색소의 목표치는 6.5%미만)
2. 원인 치료약은 있으나, 치료효과가 떨어지므로 혈당조절이 더 중요하다.
3. 통증이나 저림증상에 대해서는 진통제나 신경정신약이 사용되고 있으나, 효과는 떨어지므로 예방이 더 중요하다.
4. 발바닥에 상처가 나도 자각하지 못하고, 궤양이나 괴저를 일으키기 쉬우니 평상시 발관리가 중요하다.
5. 진행되면 자율신경이나 운동신경에 장애가되어 발기부전, 안면마비, 복시(물건이 이중으로 보이는 현상) 등 합병증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출처/일본당뇨협회 월간지 さがえ 2010년 2월호 | 번역/이현수 회원